

G20 뉴델리 정상회담과 인도의 국제경제협력 성과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차 례

1. G20 뉴델리 정상회담
2. 인도의 국제경제협력 성과
3.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3년 9월 9~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18차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포괄적인 안건을 담은 공식선언문이 회원국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발표됨.
 - 주요국의 경제적·외교적 갈등이 격화된 상황으로,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공식선언문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음.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73건의 협의 내용과 39건의 부속서류를 담은 광범위한 공식선언문이 뉴델리 정상회담 기간 중 조기에 발표됨.
- ▶ 인도정부는 G20 차원에서 합의된 특정 안건과 소다자간·양자간 협력방안 마련을 주도함.
 - 뉴델리 공식선언문에는 인도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이 요구해온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 △국제기구 역량 강화 △디지털 공공인프라의 국제적 확산과 관련한 추진방안이 포함됨.
 - 인도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과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 등 소다자간 협력체 설립에 참여했으며,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차기 G20 의장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인도는 한국 등 뉴델리 정상회담에 참석한 여러 국가와 양자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미국과는 2023년 6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 논의한 △기술 △반도체 △통신 △방산 △우주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함.
- ▶ 우리 정부는 인도와의 양자간 협력전략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방산 △우주 △정보통신 △전자 △바이오 △디지털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도와의 산업 및 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급망 안정화 및 신시장 개척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내 생산기지 확충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도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소다자간 협력체 가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도와의 삼각 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도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1. G20 뉴델리 정상회담

■ G20(Group of 20)은 국제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협력체임.¹⁾

- G20은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국제경제와 금융 안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한 협력체임.
- G20은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가간 경제정책 협력의 필요성이 심화되자 2008년 첫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9년에 정상회의의 연례적 개최를 결정함.
- 2010년대부터는 국제거시경제와 더불어 개발, 교역, 보건, 농업,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반부패 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G20 차원에서 논의됨.

■ G20 회원국은 세계 GDP의 85% 이상, 교역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19개 국가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 구성되어 있음.²⁾

- 선진국 회원은 미국(GDP 순위: 1위), 일본(3위), 독일(4위), 영국(6위), 프랑스(7위), 캐나다(9위), 이탈리아(10위), 호주(12위), 한국(13위)으로 9개국임.³⁾
- 개발도상국 회원은 중국(GDP 순위: 2위), 인도(5위), 러시아(8위), 브라질(11위), 멕시코(14위), 인도네시아(16위), 사우디아라비아(17위), 튀르키예(19위), 아르헨티나(22위), 남아프리카공화국(37위)으로 10개 국임.

■ G20의 안건 수립을 주도하는 의장국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 회원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맡으며, 2022년 12월부터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가 의장국을 담당함.

- 인도 뉴델리에서의 제18대 G20 정상회담에 앞서 회원국은 공동선언문에 담길 안건을 ‘금융 트랙’과 ‘세르파 트랙’으로 분류해 논의했으며, 비정부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참여 그룹’은 정책 제언 역할을 담당함.
 - 2022~23년 금융 트랙의 워킹그룹은 프레임워크(국제거시경제), 국제금융설계, 인프라,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과 보건, 국제 조세, 금융산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같은 기간 세르파 트랙의 워킹그룹은 농업, 반부패, 문화, 디지털 경제, 재해 위험 감축, 개발, 교육, 고용, 환경 및 기후, 에너지 전환, 보건, 교역 및 투자, 관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참여 그룹은 기업, 시민단체, 노동, 의회, 과학, 최고감사기구, 스타트업, 씽크탱크, 도시, 여성, 청년에 대한 정책을 검토함.
- 인도정부는 G20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0건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60개 이상의 도시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G20을 범국가적 행사로 기획함.⁴⁾

1) G20(2022), G20-Background Brief.

2) *Ibid.*

3) IMF의 국가분류 기준을 사용함.

4)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3. 9. 9), "English translation of Prime Minister's opening remarks at G20 Summit."

■ 2023년 9월 9~10일에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는 가시적인 협력 안건을 도출했을 뿐만 아니라 소다자간, 양자간 관계에서도 성과를 달성함.

- 국제 정치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성공적인 G20 의장국 활동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출함.
-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그림 1)라는 2023년 G20 테마와는 상충되게 미국-중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가 파편화된 상황에서, G20이 통합보다는 분열의 정상회담으로 기억되고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 미국-중국의 안보·기술 갈등, 인도-중국의 국경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2008년 G20 정상회담 출범 이후 중국의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불참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불참함.⁵⁾
 - G20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이 BRICS의 신규 회원 자격을 6개 신흥국에 부여하는 방안을 주도하는 등 G20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주도의 협력체 구축을 위해 노력함.⁶⁾
-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포괄적인 안건에 대한 G20의 합의를 끌어냈고, 다양한 소다자, 양자간 사업도 발굴함.
 - 뉴델리 정상회담은 73건의 협의결과(노력선)와 39건의 정상급 부속서류를 도출했는데, 이는 최근 정상 회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임(표 1 참고).
 - 녹색성장,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표로 한 소다자간 협력체의 설립이 추진되었고, 인도는 주요 선진국과 전략산업에서의 양자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 본고에서는 뉴델리 정상회담 기간 인도의 주도로 도출한 G20의 주요 합의 내용과 함께 인도를 포함한 특정 G20 회원국이 논의한 소다자간, 양자간 협력방안을 분석하고자 함.

- 공식선언문에 담긴 국제경제 현황 및 선언적 메시지보다는 실질적인 제도 변화 및 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의 성과를 분석하겠음.

그림 1. 2023년 G20 뉴델리 정상회담 로고 및 테마



자료: G20.

표 1. G20 정상회담 협의결과 및 부속서류 건수

(단위: 건)

의장국, 정상회담 연도	협의결과 (노력선)	부속서류	합계
인도, 2023년	73	39	112
인도네시아, 2022년	27	23	50
이탈리아, 2021년	36	29	65
사우디아라비아, 2020년	22	8	30
일본, 2019년	13	16	29

자료: G20.

5) 리창 중국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각국의 정상을 대신하여 뉴델리 정상회담에 참석함.
6)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BRICS에 새롭게 합류함.

2. 인도의 국제경제협력 성과

가. G20 협력

1)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

■ 인도는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가입이 확정됨.

- 인도는 G20이 ‘글로벌’ 협력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대륙이 참여해 국제안건 수립에 더욱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옴.
 - 지금까지는 아프리카의 1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만 G20에 포함되어 G20이 아프리카 대륙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아프리카연합의 2023년 의장인 아잘리 아소우마니 코모로 대통령에게 G20 정상 테이블에 착석할 것을 요청하며,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을 공식화함.
- 55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이 확정되면서 차기 정상회담부터는 21개 회원이 참석할 계획임.
-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으로 인해 차기 회담부터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 원조, 투자에 대한 논의가 더욱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됨(글상자 1 참고).
 - 아프리카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6,000억 달러 또는 연 1,94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⁷⁾

글상자 1. 아프리카연합 개요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sation of African Unity)는 1963년에 창설되어 1999년까지 운영됨.
 - 아프리카단결기구는 해방 및 건국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이 회원국의 결속, 영토보전 및 독립,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척결을 목표로 설립된 협력체임.
- 협력의 초점을 ‘탈식민주의’에서 ‘역내 통합 및 개발 가속화’로 전환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단결기구를 승계하는 아프리카연합을 2002년에 신설함.
 - 아프리카연합의 본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있으며, 의장국은 매년 2월 기준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담당함.
- 아프리카연합은 2013년에 아프리카 발전계획의 청사진인 ‘어젠다 2063’을 수립했고, 10개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다양한 범대륙 통합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경제협력 사업으로는 △아프리카 고속철도망 구축 △아프리카자원전략 수립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설립 △아프리카 여권 발행을 통한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4만 3,200MW 용량의 그랜드 잉가(Grand Inga) 댐 건설 △단일아프리카항공운송시장 구축 △아프리카우주전략 수립 등이 있음.

자료: African Union(2013), “50th Anniversary Solemn Declaration”; African Union(2022), “Second continent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063.”

7) AUC & OECD(2023), “Africa’s development dynamics: Investing in sustainable development.”

2) 국제기구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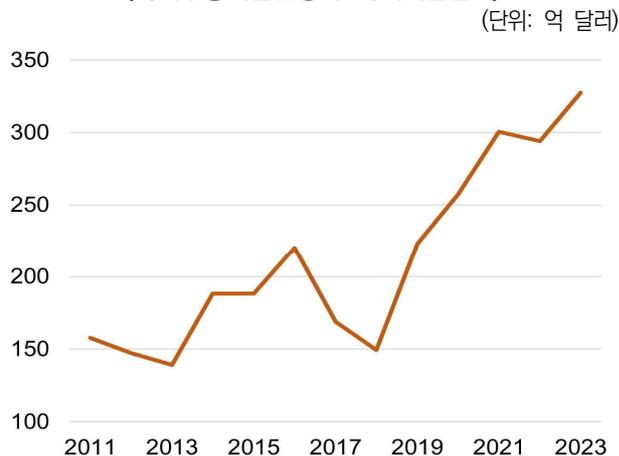
■ G20은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무역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 개혁 및 개발도상국 지원의 중요성에 동의함.

- 2024년까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무역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포용적인 회원국 중심의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에 동의함.
- 개발도상국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저개발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현지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G20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녹색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함(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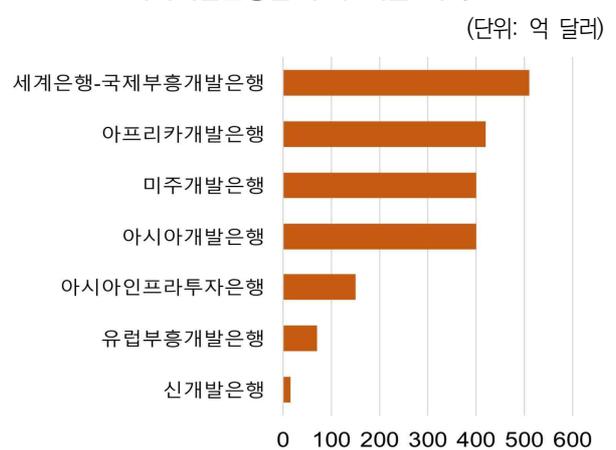
- 다자개발은행이 혼성자본 및 요구불자본금 활용, 위험 분담 및 감내 수준 조정, 주주 보증 등의 금융기법을 사용해 향후 10년 동안 약 2,000억 달러의 추가 대출 여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위한 다자개발은행의 적극적인 개혁을 촉구함(그림 3 참고).⁸⁾
- 미국 행정부는 다자개발은행의 재원 확충을 주도하고 있으며, G20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함.⁹⁾
 - 미국 행정부는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양허성 차관 한도를 250억 달러 이상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의회에 요청함.
 - 미국 행정부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에 대한 지원액 1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함.

그림 2. 세계은행의 순자금지원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



주: 회계연도 기준.
자료: World Bank Group Finances.

그림 3. 향후 10년간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자개발은행별 추가 대출 여력



자료: G20.

8) G20(2023), "G20 Road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G20 independent review of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apital adequacy frameworks."

9) The White House(2023. 9. 9), "FACT SHEET: Delivering a better, bigger, more effective World Bank."

3) 디지털 공공인프라 확산

■ 디지털화를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는 인도가 ‘디지털 공공인프라의 국제적 확산’을 G20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제시함.

- ‘디지털 공공인프라’는 그 개념이 진화하고 있어 현재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사회 단위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개방형 소스코드 소프트웨어, 개방형 표준 및 사양 △안정적이고 탄력성 있는 인프라 등의 성격을 가진 공유디지털 체계를 의미함.
- 인도정부는 G20 정상회담에서 자국의 디지털 역량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함.
- 인도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디지털 인디아’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으며, ‘인디아 스택’으로 불리는 디지털 공공인프라를 통한 금융포용성 강화가 인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행정, 의료, 농업,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표 2 참고).
 - 디지털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인도에서 은행 거래계좌 보유 비율이 대폭 증가했는데, 정부정책 없이는 47년이 소요되었을 성과를 9년 만에 달성함.¹⁰⁾
- G20 회원국의 디지털 관련 정책 및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디지털 공공인프라 보고(寶庫)를 구축하고자 하는 인도정부의 계획이 공동선언문에 담김.
- 인도정부는 G20 회원국이 참여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 지원에 협력할 수 있는 One Future 연합의 설립을 제안함.
 - One Future 연합은 국제 태양광 연합(International Solar Alliance, 94개 회원국), 재해 대비 인프라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Disaster Resilient Infrastructure, 31개 회원국)에 이어 인도가 개발도상국의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하는 세 번째 대형 국제협력체가 될 예정임.

표 2. 인도의 대표 디지털 인프라(2023년 기준)

디지털 인프라	역할	사용자 수 및 사용 건수
Aadhaar	생체정보 기반 주민등록증	13억 8,000만 명
Ayushman Bharat Digital Mission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4억 5,100만 명
Digilocker	온라인 서류 공유 플랫폼	1억 9,200만 명
eSanjeevni	원격의료 서비스	1억 5,500만 명
UMANG	정부 서비스 모바일앱	5,500만 명
MyGov	국민 의견 제안 플랫폼	3,300만 명
eNAM	온라인 농산물 거래 플랫폼	1,800만 명
United Payments Interface (UPI)	디지털 지급 플랫폼	월 거래 100억 건
Jan Dhan Yojana	디지털 정보 기반 은행계좌 개설	5억 200만 개 계좌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2023), Digital India experience zone.

10) D’Silva, Derryl *et al.*(2019), “The design of digital financial infrastructure: Lessons from India,” BIS Papers No. 106,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G20, GPFI & World Bank Group(2023), “G20 policy recommendations for advancing financial inclusion and productivity gains through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나. 소다자간 협력

1)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미국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그림 4 참고).¹¹⁾
- IMEC는 G7이 2027년까지 최대 6,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 산하 프로젝트임.¹²⁾
- IMEC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해상 및 육상 교통수단을 활용하고 중동에 철도 및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과 유럽 간 교역을 활성화하고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인도의 생산기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IMEC가 실행될 경우 인도와 유럽 간 운송에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경로 대비 40% 빠른 10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¹³⁾
- 철도 노선을 따라 전력 및 디지털 케이블과 청정수소 교역을 위한 파이프를 설치할 계획임.
- IMEC 참여국은 2023년 11월 9일 이전에 회의를 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그림 4. IMEC 경로



주: 지도의 국경은 정확도가 낮으며, 영토분쟁 지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효 지배 기준으로 표시함.
자료: 저자 작성.

11)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3. 9. 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principles of an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12) The White House(2023. 9. 9),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Modi host leaders on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13) Tanchum, Michaël(2021), “India’s Arab-Mediterranean corridor: A paradigm shift in strategic connectivity to Europe, Institute of South Asian Studies.”

2)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

- 인도, 아랍에미리트, 모리셔스, 이탈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이 참여한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GBA: Global Biofuel Alliance)이 출범함.¹⁴⁾
 - GBA는 인도가 추진한 이니셔티브로, 바이오연료 표준 및 인증제도 설정과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통해 세계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목적을 가짐.¹⁵⁾
 - 옥수수, 사탕수수, 대두(1세대)와 목질계바이오매스, 농산폐자원(2세대)을 사용해 생산되는 바이오연료의 사용 확대는 탄소배출 감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¹⁶⁾
 - 2022년 운송분야에서 사용된 액체 바이오연료 규모는 일 200만 배럴의 석유에 상응함.
 - 하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세 배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계 1~3위 에탄올 생산국인 미국, 브라질, 인도가 GBA와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바이오연료 관련 기술과 정책을 전수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됨.¹⁷⁾
 - 2022년 기준 전 세계 에탄올 생산 비중은 미국 55%, 브라질 26%, 인도 4% 순이며, 3국의 생산량은 기술개발 및 소비 촉진정책에 힘입어 지난 5년간 각각 연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¹⁸⁾

3) IBSA¹⁹⁾와 미국의 연대

- 인도와 차기 G20 의장국인 브라질(2023~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24~25년), 미국(2025~26년)의 정상들이 만나 G20이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²⁰⁾
 - 미국은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 대통령이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BRICS의 민주국가 또는 IBSA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임.
 - 미국은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IBSA 등 주요 개발도상국이 요구해온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여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강조함.
 - 브라질과 인도는 BRICS 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며, 서방-중국-러시아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G20 체제를 활용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표출하려고 함.
 - 2023년 중국 주도로 6개 국가에 BRICS 신규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브라질과 인도는 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²¹⁾

14) 방글라데시와 싱가포르를 참관국으로 참여함.

15) The White House(2023. 9. 9), "Readout of launch of the Global Biofuel Alliance."

16) International Energy Agency(2023), "Biofuel policy in Brazil, India and the United States: Insights for the Global Biofuel Alliance."

17) G20(2023), Biofuels study report.

18) Renewable Fuels Association(2023), "2023 ethanol industry outlook."

19) IBSA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민족·다문화·민주국가의 협력체로, 2003년에 설립됨.

20) The White House(2023. 9. 9),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on the G20."

21) Reuters(2023. 8. 2), "Brazil now main holdout against BRICS expansion, sources say."

다. 양자간 협력

- 모디 총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한 국가들의 정상과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고(표 3 참고), 미국, 프랑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특히 미국과 구체적인 양자간 협력방안을 도출함.

표 3. 인도 모디 총리와 G20 정상회담 참석 국가 정상의 회담 내용

국가	주요 논의 안건
모리셔스	지난 1년간 체결한 23건의 양자간 협정
방글라데시	정치 및 안보 협력, 국경관리, 교역 및 연결성, 수자원, 전력 및 에너지, 개발 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항만, 철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미국	민주적 가치, 전략적 수렴, 핵심 및 신기술 이니셔티브, 방산, 교역, 투자, 교육, 보건, 연구, 혁신, 문화 및 인적 교류
영국	경제, 방산 및 안보, 기술, 녹색기술 및 기후변화, 보건, 이동수단, 자유무역 협정 협상 지속
일본	인프라 개발, 기술협력, 투자, 에너지
이탈리아	GBA, IMEC, 방산, 신기술
캐나다	민주적 가치, 법의 지배 존중, 인적 교류, 캐나다 내 극단주의적 반인도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우려, 조직범죄, 마약조직, 인신매매
브라질	바이오연료, 의학, 농업 기반 산업, 우주항공 산업
코모로	아프리카연합, 글로벌사우스, 해상안보, 역량 강화, 개발협력
대한민국	교역 및 투자, 방산,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연합, 교역 및 투자, 방산, 농업, 금융기술
네덜란드	교역 및 투자, 방산 및 안보, 청정에너지 및 녹색수소, 반도체, 사이버 및 디지털 기술
튀르키예	교역 및 투자, 방산 및 안보, 민간항공, 해상운송, 지진 후 피해복구 지원
독일	방산, 녹색 및 지속가능개발, 핵심광물, 고급인력 이동, 교육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상 지속,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무역기술위원회, IMEC
프랑스	방산, 우주산업 및 스타트업, 원자력, 디지털 공공인프라, 핵심기술, 연결성,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국립박물관 교류, 인적 교류, IMEC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디지털화, 전자제품 생산, 반부패, 국가기록 보존, 투자, 수출금융, 기술, 해수 담수화

주: 국가 순서는 인도 외부부의 보도자료 발표순임.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Press Releases.

- 인도와 미국은 2023년 6월 모디 총리의 방미 기간에 합의한 경제협력방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하는 데 합의함.²²⁾
 - 뉴델리 정상회담 기간 진행된 인도-미국 회담에서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4자간 안보대화(쿼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함.
 - 미국은 인도가 상임의장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지원한다고 재강조하는 등 다자체제에서 인도가 더욱 큰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양국은 2023년 6월 모디 총리의 방미기간에 협의된 사안의 진행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함.
 - 2023년 6월 인도-미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기술, 안보, 청정에너지, 국제 외교전략, 보건,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²³⁾
 - [기술] 안정적인 기술 생태계와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출범한 인도-미국 ‘핵심 신흥기술 이니셔티브(iCET: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를 통해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는 데 합의함.
 - 양국은 2023년 9월 중간 점검, 2024년 초 연차 점검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 [반도체] 양국은 인도 내 반도체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원활한 실행을 지원하기로 함.
 - 2023년 6월 모디 총리의 방미기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억 2,500만 달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4억 달러 규모의 대인도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후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3억 달러,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가 4억 달러 규모의 대인도 투자 계획을 발표함.
 - [통신] 북미 주도의 넥스트 G 연합과 인도의 바라트 6G 연합의 양해각서 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의 5G/6G에 대한 협력 의지를 표명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제 텔레콤 기기를 ‘제거와 대체(Rip and Replace)’하는 미국정부의 시범 사업에 대한 인도의 지원을 환영함.
 - [방산] △인도 내 F-414 제트엔진 공동생산을 위한 제너럴 일렉트릭과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의 협력 △군함 유지·보수에 대한 미국 해군과 마즈가온 독 쉽빌더스의 협력 △인도정부의 제네럴 아토믹스 MQ-9B 고고도 장거리 무인항공기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우주] △상업 우주 비행 △인간 우주 비행 △행성 방위 △국제 우주정거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청정에너지] 미국정부는 인도의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²⁴⁾
 -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이사회는 타타파워컴퍼니의 자회사 TP 솔라가 태양광발전 전지 및 모듈 생산 공장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에 4억 2,5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함.
 - 인도 내 녹색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인도의 국가투자인프라펀드는 각각 최대 5억 달러를 투입해 신재생인프라투자펀드를 설립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함.
 - [기타] 양국은 퀀텀, 바이오 기술, 대학 교육, 성별 디지털 격차, 원자력 에너지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22)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3. 9. 8), “Joint statement from India and the United States.”

23) The White House(2023. 6. 22), “Joint state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India.”

24) The White House(2023. 9. 9),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Modi host leaders on the Partnership for Global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3. 시사점

■ 인도는 광범위한 안건에 대한 G20 회원국의 의견일치를 끌어내고자 2022년 G20 발리 공동선언문에 비해 완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기 위해 노력함.

- 발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문구와 관련하여 회원국간 마찰로 인해 공동선언문이 회담 이튿날 종료 시점에 임박하여 발표됐지만, 인도 정상회담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공동선언문이 첫째 날에 발표됨.²⁵⁾
 - G20 발리 정상회담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한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공동선언문에 담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내용에 불만을 표명하며 조기에 귀국함.²⁶⁾
- 뉴델리 공동선언문에는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라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겼고, 발리 공동선언문에 담겼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같은 강도 높은 문구가 빠짐.²⁷⁾
- 뉴델리 공동선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경제와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관한 내용에 집중함.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거시금융 안정, 물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 유엔과 러시아가 협의한 ‘세계시장에 러시아산 식료품과 비료를 공급하는 방안’과 ‘곡물과 식료품을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운송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G20 및 소다자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지위를 견고히 함.

- 인도는 2023년 1월 ‘Voice of Global South 회담’을 출범시키며 개발도상국 또는 ‘글로벌 사우스’의 의견을 G20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함(글상자 2 참고).²⁸⁾
 -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가 뉴델리 공동선언문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모디 총리는 뉴델리 정상회담의 세션 1(‘하나의 지구’), 세션 2(‘하나의 가족’), 세션 3(‘하나의 미래’) 발언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함.²⁹⁾
- G20에서 논의된 △아프리카연합의 G20 가입 △국제기구 역량 강화 △디지털 공공인프라 확산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된 안건임.
- G20 기간에 설립 및 추진 계획이 발표된 One Future 연합과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술 전수 및 인프라 투자가 주요 목적임.

25) Jakarta Post(2023. 9. 8), “India seeks G20 consensus by noting Russia’s views on Ukraine”; Mint(2023. 9. 10), “G20 joint statement was unexpected, says Russian foreign minister.”

26) Jakarta Globe(2022. 11. 15), “Russian foreign minister leaves Bali summit early after blaming Ukraine.”

27) 발리 정상회담 당시 특정 G20 회원국은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비판이 발리 공동선언문에 포함되기를 원했으나, 인도가 회원국의 의견일치를 끌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Financial Times(2022. 11. 15), “G20 leaders to agree draft communiqué rejecting ‘era of war’.”

28)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3. 1. 13), Prime Minister Shri Narendra Modi’s closing remarks at the concluding leaders’ session of the 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9) G20(2023. 9. 9), “Prime Minister’s remarks at the G20 Summit Session 1”; G20(2023. 9. 9), “Prime Minister’s remarks at the G20 Summit Session 2”; G20(2023. 9. 10), “Prime Minister’s remarks at the G20 Summit Session 3.”

- 인도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사회 내 지위 및 국내 개발과제가 유사한 IBSA간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임.

글상자 2. 'Voice of Global South' 회담

- 인도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Voice of Global South 회담'은 개발도상국이 국제협력 안전에 관한 입장, 우선순위,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임.
- 인도는 2023년 1월 12~13일 제1차 'Voice of Global South 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함.
 - o 회담에 47개 아프리카 국가, 31개 아시아 국가, 29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11개 오세아니아 국가, 7개 유럽 국가 등 총 125개국이 참여함.
 - o 회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핵심 과제로 △전쟁, 분쟁, 테러리즘, 지리정치적 마찰 △식품, 비료, 연료 가격 상승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언급됨.
 - o △금융 △환경 △외교 △에너지 △보건 △교육 △통상 및 교역 △G20 의장국에 대한 제언 등 8개 분야에서 장관급 회의가 진행됨.
- 인도는 'Voice of Global South 회담'의 논의 내용을 G20 정상회담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으며, 실제로 △교육, 보건, 금융 분야 디지털 인프라 구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자원 및 기술에 관한 내용이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대응방안이 공동선언문에 담김.
- 외교적으로는 'Voice of Global South 회담' 출범이 서방국가와의 마찰 및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로 인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인도가 개발도상국의 대표 주자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도 평가됨.
 - o 'Voice of Global South 회담'에 초청받았는지는 불확실하나 중국 등 G20의 개발도상국 회원은 참석하지 않음.
- 인도는 'Voice of Global South 회담'에서 밝힌 남-남 개발협력 사업을 실행에 옮기며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o 인도는 자연재해 및 인도주의적 위기의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에 필수 의료품을 제공하는 Aarogya Maitri, 글로벌 사우스 전문가조직, 글로벌 사우스 과학 및 기술 이니셔티브, 글로벌 사우스 청년 외교관 포럼, 글로벌 사우스 장학제도와 같은 협력사업을 발표함.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3), 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3.

■ 주요 선진국이 인도를 대외전략의 핵심적인 유사입장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재확인함.

- 특정 선진국은 러시아에 대한 더욱 비판적인 문구가 포함되기를 원했지만, 공동선언문 합의 도출을 통한 인도의 성공적인 의장국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해 최종안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³⁰⁾
- 미국이 G20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한 안건은 '개발도상국과의 약속', '식량안보 강화', '국제 보건과제 해결', '세계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도가 의장국으로서 우선시한 안건과 유사했으며,³¹⁾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양자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인도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인도와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 뉴델리 정상회담 기간 논의된 소다자 협력체에 인도와 함께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가 참여함.

30) Financial Times(2023. 9. 11), "Western nations accept 'climbdown' on Ukraine to salvage G20's relevance."

31) The White House(2023. 9. 9), "FACT SHEET: Delivering an ambitious agenda for the G20."

-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기업과 인도정부의 수요를 반영해 전략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인도는 2023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 현재 세계 5위 경제대국에서 5년 내 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의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인도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개선 작업과 더불어 △방산 △우주 △정보통신 △전자 △바이오 △디지털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및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³²⁾
 - 한국정부와 인도정부는 양국의 교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에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개선협상을 총 아홉 차례 진행함.³³⁾
 - 한국정부는 2021년 인도를 제3기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에 포함했고,³⁴⁾ 대인도 개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스마트시티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환경 △그린에너지 △정보통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인도 국가협력전략’을 2022년에 발표함.³⁵⁾
 - 한국정부는 인도정부와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체결 시 규모는 2023~26년 40억 달러로 현재 최대 규모인 필리핀의 30억 달러(2022~26년)보다 큼.³⁶⁾
 - 한국정부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인도 진출전략을 단순 수출형에서 현지 투자형으로 전환하려는 우리 기업의 전략을 지원하고,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인도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음.
 - 인도정부는 산업화 전략인 ‘Make in India’의 일환으로 생산연계 인센티브라는 기업 보조금 정책을 전자전기,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도입하는 등 산업화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집중도와 국제정세 불안에 대한 우려에 기반해 많은 다국적기업이 가치사슬 다변화 전략을 설계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유력한 생산기지로 검토되고 있음.³⁷⁾
 - 인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려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정부는 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설비이전, 부품 조달 등 핵심 단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주(州)별 투자환경 및 인력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제조업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한국기업을 도시 외교 및 지역별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³⁸⁾
 - 한국정부는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IMEC에 대한 참여 및 활용을 통해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안정화 및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2014년부터 집권한 모디 총리가 2024년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³⁹⁾ 지난 10년간 추진된 다양한 분야의 발전정책이 ‘도입기’와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진입하는 과정을 우리나라의 대인도 산업 및 개발협력 전략에 반영해야 함.

32) 대한민국 외교부(2023. 4. 8), 「박진 외교장관, 인도 공식 방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2023. 5. 4), 「추경호 부총리, 인도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대한민국 대통령실(2023. 5. 20), 「尹 대통령, 인도 총리 만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강조」; 대한민국 대통령실(2023. 9. 10),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담 계기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33)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2022. 11. 3),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9차 개선협상 개최」.

34)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2021),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35) 대한민국 관계부처 합동(2022), 「인도 국가협력전략」.

36) 대한민국 기획재정부(2023),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

37) 김경훈(2022), 「‘메이크 인 인디아’ 성과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38) 노윤재 외(2022), 『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KIEP 연구보고서.

39) Reuters(2023. 9. 13), “Riding India’s G20 wave, Modi’s party sets up for elections.”

- 인도정부는 2024년 총선 이후 신·재생에너지산업,⁴⁰⁾ 디지털산업,⁴¹⁾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산업⁴²⁾ 등 핵심 분야에서의 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가 역할을 맡으며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인도와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다자개발은행 역량 확충에 참여하고, 인도정부가 주도적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다자간·소다자간 연합에 가입해 국제개발과제 해결에 동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인도가 설립 계획을 밝힌 One Future 연합과 글로벌 바이오연료 연합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도의 유사입장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고 인도가 이끄는 국제 태양광 연합과 재해 대비 인프라를 위한 연합에 대한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인도정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3국에서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삼각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인도정부는 유무상원조, 수출입은행 차관, 기술 전수, 의약품 기부 등 다양한 성격의 개발협력을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⁴³⁾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인도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제3국을 지원하는 삼각 개발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음.⁴⁴⁾
- 한국정부가 인도정부와 국제무대에서 협력할 시 특정 국가에 대한 인도의 특수한 입장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⁵⁾
 - 인도는 과거 비동맹주의(non-alignment)로 불리는 외교전략을 고수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multi-alignment 또는 all-alignment)을 추진하고 있음. **KIEP**

40) 한형민 외(2022),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정책 분석과 한-인도 협력방안』, KIEP 연구보고서.

41) 한형민 외(2020),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과 정책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42) 남유진(2023), 「인도 스마트시티 미션(Smart Cities Mission)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43)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2022), "75 years of development partnership."

44) OECD, "Triangular co-operation repository of projects."

45) 김경훈(2022), 「부탄의 대인도·중국 균형전략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김경훈(2023), 「파키스탄의 복합위기와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김경훈(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의 대러시아 수입 동향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김도연 외(2022), 「2022년 네팔 총선 결과와 집권당의 과제」, KIEP 세계경제 포커스.